

飲食物에 依하여 發生되는 咳嗽에 對한 文獻的 考察

金聖炫 · 李俊茂 · 韓相桓

I. 緒論

咳嗽라 함은 咳는 “無痰而有聲”이라 하여 肺氣가 傷하여 不清한 것이고, 嘶는 “有痰而無聲”이라하여 脾濕이 動하여 痰을 生成한 까닭이다.¹⁴⁾

咳嗽를 誘發하는 要因에는 많은 原因이 있으나 一部文獻에서 飲食物과 咳嗽도 相互關連되어 있고, 나타나는 症狀도 他咳嗽證과 구별되어 消化系의 症狀을 隨伴하고 있다.

飲食物은 人體가 摄取하는 營養分의 源泉이 되어 生命과 活動을 維持하기 為한 必須不可缺少한 物質이다. 그러므로 飲食物을 摄取함에 있어서 그 常道를 일으면 (飢飽失常飲食偏嗜飲食不潔), 人體에 害를 끼쳐 疾病을 發生시키는 重要한 原因이 된다. 咳嗽도 여기에 屬하며 이것은 痰飲이 主原因이 된다. 痰飲은 體內의 水液이 運化하지 못하고 停留되어 一部位에 病理的 產物을 生成하여 나타나는 것이다.²⁸⁾

食積嗽는 食積에 依하여 脾의 運化가 失調되어 痰飲을 生成하여서 肺를 傷하게 되므로 發生된다. 即 脾는 水濕을 主管하고 肺는 宣發과 蕭降을 主管하고 水導를 通調하는데, 脾의 運化機能이 失調되어 水濕을 運化시키지 못할 境遇에는 水濕이 한 곳에 모여 痰飲을 形成하고, 그 影響이 肺의 宣發蕭降機能에 미침으로써 咳嗽를 發하게 된다.²⁹⁾

古代에서 現代文獻에 이르기 까지 40種의 文獻을 調查한 바에 依하면 食積嗽를 별도로 分離 表現한 文獻은 《東醫寶鑑》《醫宗秘讀》等 5種에 불과하고, 그 外에는 類似證으로 表記되어 있으므로 이것들을 總括하여 食積을 主

로 삼고, 脾胃에 依해 發生되는 痰飲을 客 原因으로 選擇하여, 咳嗽의 原因 痘機와 證狀을 調査하여, 지금까지 咳嗽門에서 等閑視되어온 飲食物에 依하여 發生되는 咳嗽에 對하여 考察하고자 한다.

II. 研究方法

內徑으로 부터 現代文獻에 이르기 까지 飲食物에 依하여 發生되는 咳嗽의 原因과 證狀에 對하여 總 43種의 文獻을 調査하여 다음과 같이 考察하였다.

- 1) 上記 文獻 中 食積嗽로 分離 表現된 5種의 文獻을 根本으로 原因과 證狀을 考察하였다.
- 2) 食積嗽로 分離 表現되지는 않았으나 食積嗽로 說明된 文獻은 食積嗽에 包含시켜 記述하였다.
- 3) 그 外 飲食物에 依해 咳嗽가 發生되는 여러 가지 咳嗽證을 統合하여 각各 原因과 證狀을 記述하였다.

III. 本論

1. 黃帝內徑

五臟各以治時 感於寒則受病. 脾咳不已則胃受之. 寒飲食入胃
咳則 右脇下痛 陰陰引肩背 甚則不可以動
動則咳劇 咳而嘔 嘔甚則 長蟲出

2. 黃帝內徑素問今釋

五臟各以治時 感於寒則受病. 脾咳不已則

- 胃受之
咳則 右脇下痛 陰陰引肩背 甚則不可以動
動則 咳劇 咳而嘔 嘔甚則 長蟲出
3. 巢氏諸病原候論
五臟各以治時 感於寒則受病。 脾咳不已則
胃受之
咳則 右脇下痛 陰陰引肩背 甚則不可以動
動則 咳劇 咳而嘔 嘔甚則 長蟲出
4. 諸病原候論
五臟各以治時 感於寒則受病。 脾咳不已則
胃受之。 寒飲食入胃
咳則 右脇下痛 陰陰引肩背 甚則不可以動
動則 咳劇 咳而延出 繼續不止 引少腹是也
咳而嘔 嘔甚則 長蟲出 痰出則 咳止 飲食
減少 胸院脹悶 或嘔惡 面浮
5. 醫學漢文中 脾胃勝衰論
夫飲食不節則胃病 胃病則氣短精神少 而生
大熱 有時而顯火上行 獨燎其面
6. 儒門事親
一切涎嗽 是飲食厚味 热痰之致然也
7. 六科準繩
食積痰。 因傷於肺氣 動於脾 咳而爲 故也
秋傷於濕 積於脾 脾咳不已則 胃受之
8. 張氏景岳全書
食積成痰 痰氣上升以致。 五臟各以治時 感
於寒則受病。 因傷於肺氣動於脾咳而爲故也
秋傷於濕 積於脾。 寒飲食入胃
9. 醫學綱目
食停積嗽。 秋傷於濕 積於脾。 濕病痰飲入
胃 留之不行。 飲酒像肺。 好酒 食積 後因
汗房勞。 寒水 冒微雨 忍飢後 飽食酒肉
- 飲食痰嗽發熱。 不思飲食 或一兩時惡心 味
不化 吐逆 酸水
10. 證治準繩
飲食失節 飲冷熱酒
飲食痰嗽發熱
11. 新刊濟世全書
胃中有食即 至此時滯肺氣不利
12. 普濟方
咳則 右脇下痛 陰陰引肩背 甚則不可以動
動則 咳劇
咳而嘔 嘔甚則 長蟲出
13. 醫碥
食積人 面青白黃 色不常 面上有如 蟹路
一黃一白 黃昏睡熱中忽嗽痰數口
14. 醫方類聚
飲冷食 寒注胃
咳則右脇下痛 啪噃引干迫背 甚則不可動
動則咳
15. 鄉藥集成方
咳則 右脇下痛 陰陰引肩背 甚則不可以動
動則 咳劇
咳而嘔 嘔甚則 長蟲出
16. 醫宗損益
因食生痰
胸滿噫酸 咳嗽 胸滿 噫酸 面青白黃色不常
面上如 蟹爪路 一黃一白 痰嗽 痰出 嘴止
多胸滿
17. 東醫寶鑑
因食積生痰 酒後 引飲冷 生痰
咳嗽 胸滿 噫酸 面青白黃色不常 面上如

- 蟹爪路 一黃一白 咳則 右脇下痛 隱隱引肩背 甚則不可以動 動則 咳劇 咳而嘔 嘔甚則 長蟲出
19. 診療要鑑
因食積生痰
酒後 引飲冷 生痰
20. 校正明醫指掌
食積痰 肥人多濕多痰
痰嗽 痰出 咳止 多胸滿
21. 外臺秘要
飲冷食 寒注胃
咳則 右脇下痛 隱隱引肩背 甚則不可以動
動則 咳劇 咳而延出 繼續不止 引少腹是也
咳而嘔 嘔甚則 長蟲出
22. 中醫內科學
脾胃生痰之源 脾胃運化失調 飲食不能化爲津液而化爲痰濕 上擾于肺 塞塞氣機 則出現咳嗽 多痰等症
23. 中醫歷代醫論選
咳爲無聲而有痰 脾濕動而爲痰 此指有痰之嗽主脾濕 無痰之咳主肺傷
24. 漢醫學辭典
脾胃內寒
胸悶痞悶 惡食 噫腐 吞酸 舌苔 厚膩
25. 中醫臨床問題
飲食所傷 脾胃運化失調 脾胃陽虛
26. 中醫診斷學
痰濕犯肺
咳嗽痰多 痰出咳停 痰白而稀 胸悶脘痞 納呆便溏 舌白膩 脈濡滑
27. 東樞撮要
飲冷食 寒注胃
咳則 右脇下痛 隱隱引肩背
甚則不可以動 動則 咳劇 咳而嘔
嘔甚則 長蟲出
28. 中醫學問答
嗜酒 胃中積熱
29. 臟腑辨證論治
脾의 運化機能이 失調되어 水濕을 運化시키지 못할 境遇에는 水濕이 한곳에 모여서 痰飲을 形成하고 그 影響이 肺의 宣發機能과 蕭降機能에 미침으로써 咳喘을 發한다.
30. 東洋醫學大辭典
因納食過多 停滯不化
胸滿 噫酸 發熱 或 痘瘍 塞滯 面常見青黃白諸色及 黃白紋痕 脈多數硬
31. 東醫內科學
脾는 痰을 生成하는 源泉이다. 脾虛로 運化의 機能을 잃어 飲食이 津液으로 化하지 못하고 痰濕으로 化하여 위로가서 肺에 貯藏되어 氣機를 塞塞하게 되면 咳嗽多痰 等의 症狀이 나타난다.
32. 石塘韓醫學
因 納食過多 停滯不化
酒後 引飲冷 生痰
胸滿 噫酸 發熱 或 痘瘍塞滯 面常見青黃白諸色及 黃白紋痕 脈多數硬 痰多嗽血 喘急脇痛 不得安臥
33. 李常和治療指針
咳嗽屬肺 ··· 六淫之邪 自外擊之則鳴 勞憊情志飲食炙博之火 自內攻之則亦鳴

34. 風火痰癥論

脾不健運 則肺氣壅塞 肺爲水之上源 肺氣不宣

35. 赤水玄珠

食積痰 秋傷於濕 積於脾
咳嗽 胸滿 嗳酸 面青白黃色不常 面上如蟹爪路 一黃一白 咳則右脇下痛 陰陰引肩背 甚則不可以動 動則咳嗽 咳而嘔 嘔甚則長蟲出

36. 萬病醫顧問

恣食厚味 恣食猪肉酒等物 生痰 痰結 肺氣不宣 肅降之令不行 上逆而喘

37. 蘇修德

咳嗽氣逆 小數短澁 四肢浮腫

38. 增補萬病回春

食積痰者 多飲食飲鬱 久成痰。
胃中有食積 飲食灸體之火 自內攻之。
脾胃有濕
胸中痞塞張滿 惡心慾吐而不能吐 氣上衝咽
喉呼吸不利 寸脈微浮 手足不溫 或發熱 惡寒 汗出 痰嗽如膠 早晨嗽 咳嗽線痰

39. 嚴夔丹

咳則右脇下痛 陰陰引肩背 甚則不可以動 動則咳嗽 咳而嘔 嘔甚則長蟲出

40. 黃氏醫書八種

脾胃乃痰飲之本 痰涎溼生呼吸壅凝 則咳嗽發作。咳嗽者 肺胃之病也

41. 中醫症狀鑑別診斷學

脾氣虛弱 運化失常 聚濕生痰 痰濕于肺 痰濕壅盛 脾虛咳嗽 痰多色白易咳出 少氣面白 微腫 食少 便溏

42. 三因方

飢飽傷脾
咳嗽 中滿脹 槟榔心痛 不慾食

43. 簡明傷寒論

食傷嗽
胃脘痛

IV. 總括 및 考察

1. 食積嗽의 原因而 따른 分類

調査文獻은 總 43種으로 食積嗽를 따로 分離表現한 文獻은 5種이었고, 12種의 文獻에서는 따로 分離 表記하지는 않았으나, 食積嗽를 다루고 있었다.

이것들을 總括하여 보면 王의 六科準繩⁷⁾과 朱의 校正明醫指掌²⁰⁾ 및 羅의 赤水玄珠³⁵⁾에서는 食積痰에 依한다고 하였고, 薦의 新刊濟世全書¹¹⁾에서는 胃中에 植物이 있으면 滯가되어 肺氣가 不利한다고 했으며, 韓의 石塘韓醫學³²⁾에서는 因納食過多하여 停滯不化하고 轉爲敗濁하여 隋呼吸之氣而上溢入肺하게 되어 食積嗽가 發生한다고 하였다.

또한 李의 李常和治療指針³³⁾에서는 飲食灸 박之火가 自內攻之則亦鳴이라고 했으며, 薦의 增補萬病回春³⁸⁾에서는 食積痰者 多凌飲食鬱久成痰也 胃中有 食積이라 하였고, 陳의 三因方⁴²⁾에서는 飢飽常備라 했으며, 나머지는 主原因을 飲食失節에 두고 있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食積嗽의 主原因은 飲食失節로, 飲食物이 胃中에 積聚되어 痰을 生成하게 되면, 痰飲停蓄으로 말미암아 肺의 宣發 肅降機能이 失調되어 呼吸의 氣가 上溢 하여 入肺하므로 食積嗽가 發生됨을 알 수 있다.

2. 飲食物과 關連된 咳嗽에 對한 原因分類

여기에서 對한 調査文獻은 總 30種으로 食積嗽와 類似한 咳嗽로는 脾咳, 胃咳, 痰嗽, 酒嗽를 볼 수 있는데, 이들의 각각 原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脾咳는 張의 張氏景岳全書⁸⁾에서는 因傷於肺氣動於脾濕咳而爲故也 脾濕者 秋傷於濕 積於脾也라고 했으며, 楊의 黃帝內經素問譯解¹⁾와 巢의 巢氏諸病原候論³⁾에는 五臟各以治時 感於寒則受病 微則爲咳, 乘至陰則脾先受之라 하여 脾咳가 發生된다고 했고, 王의 六科準繩⁷⁾에서는 因傷於肺氣而咳動於脾濕이라 했고, 樓의 醫學綱目⁹⁾에서는 秋傷於濕 積於脾也라고 했으며, 中議症狀鑑別診斷學⁴¹⁾에서는 脾氣虛弱 運化失常 聚濕生痰 痰濕阻肺라 하여 脾咳가 發生한다고 하였다.

胃咳의 原因은 楊의 黃帝內經素問譯解¹⁾, 巢의 巢氏諸病原候論³⁾, 張의 張氏景岳全書⁸⁾等은 그 原因을 脾咳不已 則胃受之라 하여 胃咳가 發生된다고 하였다.

痰嗽에 對해 張의 儒門事親⁶⁾에서는 飲食 厚味 熱痰之致然也라고 했고, 樓의 醫學綱目⁹⁾에서는 濕病痰飲入胃留之而不行 上入於肺則爲嗽라 했으며, 王의 中醫臨床問題²⁵⁾에서는 因脾腎陽虛 不能運化木谷 以致飲留腸胃라 하여 發生한다고 했다. 또한 中醫症狀鑑別診斷學⁴¹⁾에서는 痰濕壅盛이라 했고, 翼의 增補萬病回春³⁸⁾에서는 脾胃有濕하여 痰嗽가 發生한다고 하였다.

寒嗽는 楊의 黃帝內經素問譯解¹⁾, 諸病原候論校釋⁴⁾ 및 張의 張氏景岳全書⁸⁾에서 그 原因을 寒飲食이 入胃하면 從肺脈하여 上至於肺則肺寒한데 肺寒則 外內合하여 邪가 因而客之則爲肺咳라 하였고, 醫方類聚¹⁵⁾, 王의 外臺秘要²¹⁾ 및 姜의 東樞撮要²⁷⁾에서는 飲冷食寒入注胃 從肺脈上氣 内外合因之而咳라 하였다.

酒嗽도 食積嗽와 類似한데 樓의 醫學綱目¹⁾

에서는 飲酒傷肺라 했고, 何의 醫經¹³⁾에서는 飲冷熱酒 飲酒傷肺痰多라 했으며, 楊의 中醫學問答²⁸⁾에서는 嗜酒者 常常胃中積熱 胃熱上薰上薰有熱 肺的清肅功能失常해서 發生한다고 하였다.

또한 許의 東醫寶鑑¹⁶⁾에서는 酒性大熱 因傷引飲冷 與熱凝於胃中不散而成濕故痰作咳嗽 飲酒多咳嗽라 하여 酒嗽의 原因을 밝혔다.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脾咳·胃咳·痰咳·酒嗽等은 그 原因에 있어서多少의 差異는 있으나 食積嗽와 類似하여 飲食失常이 人體에 咳嗽를誘發시킨다는 것을 알수있다.

3. 食積嗽의 症狀에 따른 分類

食積嗽의 症狀이 記載된 文獻은 醫學綱目⁹⁾, 證治準繩¹⁰⁾, 醫偏¹³⁾, 醫宗損益⁷⁾, 東醫寶鑑¹⁶⁾ 診療要鑑¹⁹⁾, 韓醫學辭典²⁴⁾, 中醫學問答²⁸⁾ 東洋醫學大辭典³⁰⁾, 石塘韓醫學³²⁾, 赤水玄珠³⁵⁾, 增補萬病回春³⁸⁾, 三因方¹²⁾, 簡明傷寒論⁴³⁾ 等 14 種이었다.

이 中面青白黃色不常 面上有如解爪趾 一黃一白者라고 記錄된 文獻은 醫經¹³⁾, 東醫寶鑑¹⁸⁾, 診療要鑑¹⁹⁾, 赤水玄珠³⁵⁾ 等 4種이었고, 胸滿 噁酸 惡食 噎腐 吞酸 不慾食 胃脘痛等 消火器 症狀을 나타낸 文獻이 醫宗損益¹⁷⁾ 東醫寶鑑¹⁸⁾, 診療要鑑¹⁹⁾, 韓醫學辭典²⁴⁾, 中醫學問答²⁸⁾, 東洋醫學大辭典³⁰⁾, 石塘韓醫學³²⁾, 赤水玄珠³⁵⁾, 三因方⁴²⁾, 簡明傷寒論⁴³⁾ 等 10 種이었다.

또한 醫學綱目⁹⁾, 證治準繩¹⁰⁾에서는 飲食痰嗽發熱이라 했고, 增補萬病回春³⁸⁾에서는 痰嗽如膠 早晨嗽라고 하였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食積嗽의 主症狀은 面青白黃色不常 面上有如解爪路 一黃一白者 및 胸滿 噎酸 惡食 吞酸 等의 消化器系症狀이 主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4. 飲食物과 關連된 咳嗽에 對한 症狀 分類

脾咳의 症狀을 記載한 文獻은 總 14 種으로 그中 咳則右脇下痛 陰陰引肩背 甚則不可以動 動則咳劇으로 記載한 文獻은 皇帝內經譯解¹⁾, 皇帝內經素問今釋²⁾, 巢氏諸病源候論³⁾, 諸病源候論校釋⁴⁾, 普濟方¹²⁾, 醫藥集成方¹⁶⁾, 東醫寶鑑¹⁸⁾, 外臺秘要²¹⁾, 東樞撮要²⁷⁾, 赤水玄珠³⁵⁾ 等 10 種이었으며, 脾咳 咳而延出 繼續不止 引少腹是也^豆 記載한 文獻은 諸病源候論校釋⁴⁾, 外臺秘要²¹⁾ 等 2 種이었고 醫學綱目⁹⁾ 에서는 脾嗽 不思飲食 或一兩時惡心이라 했고, 醫方類聚¹⁵⁾ 에서는 脾咳之狀 咳則右脇下痛 嗡嗁引干傳背 甚則不可動動則咳라 했다.

胃咳의 症狀을 記載한 文獻은 12 種으로 그主症狀은 胃咳而嘔 嘔甚則 長蟲出로써 黃帝內經譯解¹⁾, 黃帝內經素問今釋²⁾, 巢氏諸病原候論³⁾, 諸病源候論⁴⁾, 普濟方¹²⁾, 醫藥集成方¹⁶⁾, 東醫寶鑑¹⁸⁾, 外臺秘要²¹⁾, 東樞撮要²⁷⁾, 赤水玄珠³⁵⁾ 等 10 種에 記載되어 있고, 醫學綱目⁹⁾에는 胃嗽吐逆酸水라 했다.

痰嗽는 黃의 醫宗損益¹⁷⁾, 朱의 校正明醫指掌²⁰⁾에서 痰嗽痰出嗽止 多胸滿이라 했고, 中醫診斷學²⁶⁾에서는 咳嗽痰多 痰出咳停 痰白而稀 胸悶腕痞 納呆便溏苔白膩脈濡滑이라 했다.

또한 增補萬病回春³⁸⁾에서는 咳嗽線痰이라고 했으며, 中醫症狀鑑別診斷學⁴¹⁾은 痰出則咳止 飲食減少 胸腕脹悶 或嘔惡面浮라 했다.

酒嗽의 症狀은 韓의 石塘韓醫學³²⁾에 痰多唾血 喘急 腸痛 不得安臥로 그 症狀이 記載되어 있다.

以上과 같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食積嗽 以外의 飲食物과 關連된 咳嗽 即 脾咳, 胃咳, 痰嗽, 酒嗽 및 寒咳 等의 症狀은 食積嗽와 類似한 點이 많으나, 痰嗽의 境遇와 같이 痰이 出吐되면 咳嗽가 그치는 等의 差異點을 볼 수 있었다.

V 結論

以上 四十三種의 文獻을 原因과 證狀에 對하여 考察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 1) 食積嗽의 原因은 飲食失節로 飲食의 積聚에 의해 生成된 痰飲에 衣해 發生된다.
- 2) 食積嗽를 除外한 飲食物과 關連된 咳嗽로는 脾咳 胃咳 痰嗽 酒嗽 및 寒咳를 들 수 있다.
- 3) 食積嗽의 症狀으로는 他咳嗽證과는 달리 面青白黃 色不常 面上有如解爪로 一黃一白 胸滿 嘔酸 惡食 嘔腐 吞酸 不慾食 胃脘痛 飲食痰嗽發熱 痰嗽如膠 早晨嗽 等의 消化系症狀이 많이 나타남을 볼 수 있었으며, 이것은 모두 食積生痰에 依해 表現되는 것이었다.
- 4) 飲食物과 關連된 咳嗽의 證狀 또한 食積嗽와 같이 消化系證狀이 兼證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 參考文獻 >

1. 楊維傑: 黃帝內經譯解 大一書局 1977 P 57. 254 - 298 臺北
2. 王琦外: 黃帝內經素問今釋 成輔社 P184 - 187 서울
3. 巢元方: 巢氏諸病原候論 昭人出版社 卷 8 P 5, 卷 14 P 1- 8 臺中
4. 南京中醫學院 諸病源候論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450 - 453 北京
5. 李昊: 醫學漢文中의 脾胃勝衰論 成輔社 1982. P 262 - 265 서울
6. 張子和: 儒門事親 旋風出版社 1948. P 16 - 17 臺北
7. 王肯堂: 六科準繩 上海鴻寶齋書局 1982 P 130 - 134 上海

8. 張介賓: 張氏景岳全書 精版社 1975 卷 16
P 253 - 259 서울
9. 樓 英: 醫學綱目 臺南北一出版社 P 1-3,
14, 22, 23, 28, 29, 34, 35, 44, 45 臺南
10. 王肯堂: 證治準繩 新文豐出版公司 1944
P564-567 臺北
11. 襟廷賢: 新刊濟世全書 新文豐 出版 公司
1967 134 - 135 臺北
12. 周定王 普濟方 輸成社 1981 P 1776, 1847
서울
13. 何夢瑤: 醫編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2
P 89 - 92 上海
14. 陳夢雷外: 醫部全錄 人民衛生出版社 1983
P 431 - 573 北京
15. 醫方類聚 人民衛生出版社 1980 P 13 - 15
P 70 - 71 北京
16. 鄉藥集成方 杏林書院 1954 P180-181 서울
17. 黃道淵: 醫宗損益 醫藥社 1976 P 494-501
서울
18. 許 渢: 東醫寶鑑 南山堂 1981 P 469-464
서울
19. 金定濟: 診療要鑑 東洋醫學研究員 1974
P 590 - 591
20. 朱尚龍: 校正明醫指掌 癸丑文化社 1974
卷 3 P 4 - 9
21. 王 憲: 外臺秘要 泳東文化史 1975 卷 9
P 243 - 266 서울
22. 上海中醫學院 中醫內科學 1977 P 12 - 15
香港
23. 王新華: 中醫歷代醫論選 江蘇科學技術出
版社 1983 P128 - 129, 408 - 409 中國
24. 金賢濟: 漢醫學辭典 成輔社 1983 P 456 -
457 487 서울
25. 江玉文外: 中醫臨床問題 湖南科學技術出
版社 1983 P 7 - 8 湖南省
26. 長春中醫學院 中醫診斷學 吉林人民出版社
1984 P 260-261, 145-146 吉林省
27. 姜孝信: 東樞撮要 醫學社 1984 P 100-101
서울
28. 楊醫亞: 中醫學問答 人民衛生出版社 1985
上 P 54~56, 108~109, 116, 170~171, 227,
291~293, 322 北京
29. 金完熙: 臟腑辨證論治 成輔社 1985 P 268
~311, 324, 340~341 서울
30. 謝觀原: 東洋醫學大辭典, 高文社, 1985
P 504, 935 서울
31. 具本泓: 東醫內科學 書苑堂 1985 P 34-39
서울
32. 韓南洙: 石塘韓醫學, 國際文化社, 1985
P 502~503 全南光州
33. 李常和: 李常和 治療指針, 醫藥社, 1986
P 302~303 서울
34. 章真如: 風火痰瘀論 人民衛生出版社 1986
P 2, 3, 94, 95 北京
35. 羅浮道人: 赤水玄珠 卷 7 P 1~11
36. 陸青節: 萬病醫顧問 大中國圖書公司 1946
P 89, 104, 105 臺北
37. 蘇修德: 臺南新世紀 出版社 1948 P 9~10
臺南
38. 襟廷賢: 增補萬病回春 大中國 圖書 公司
1948 P 110~111, 122~123 臺北
39. 嚴菱丹: P 208~211
40. 黃元御: 黃氏醫書八種 書苑堂 1983 P57~
59 서울
41. 中醫研究員 中醫症狀鑒別診斷學 人民衛生
出版社 1987 P 225~299 北京
42. 陳無擇: 三因方 輸成社 1977 P 321, 324,
327, 328 서울
43. 難知外: 簡明傷寒論, 大星文化社, 1980
P 111 서울

A B S T R A C T

The bibliographical study on coughing made of foods and wine

Kim, sung hyun

Department of Oriental Medicine

Graduate School of Won Kwang University

Directed by Prof. Han, Sang Whan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cause and symptom of coughing made of foods and wine by referring to 43 literatures.

The results were obtained as follows;

1. The factor causing Sik Juk Su (食積嗽) is Dam Yeum (痰飲) made from mistaking meals.

2. Excepted Sik Juk Su (食積嗽), Coughing made of foods and wine are Bi Hae (脾咳), Uey Hae (胃咳), Dam Su (痰嗽), Ju Su (酒嗽), Han Su (寒嗽).

3. The symptom of Sik Juk Su (食積嗽) is as follows.

pale-looking

cough in early morning

pain of right sub-ribs

body tired

low appetite

body fever

vomitting acid

4. Excepted Sik Juk Su (食積嗽), the symptom of Coughing made of foods and wine are simulant of Sik Juk Su (食積嗽).